



베이징올림픽 D-29

금메달 기대주

① 수영 박태환

“4년前 실적 아픔... 금으로 씻겠다”

(부정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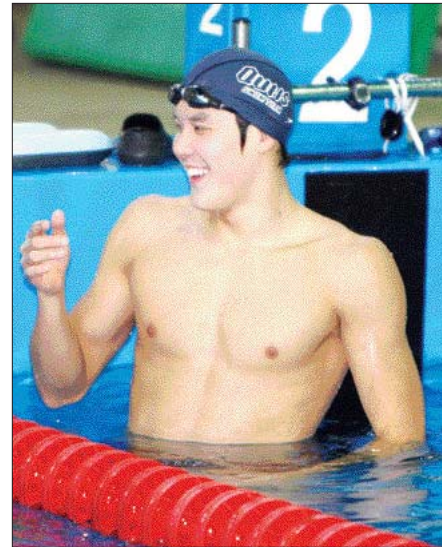
베이징올림픽(개막 8월 8일)이 다가오면서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2회 연속 톱 10에 오른다는 한국의 메달 유망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개인 및 단체 메달 기대주를 소개한다.

자유형 200·400·1,500m 출전

기록 단축위해 휴일도 없이 구슬땀

“올림픽 수영 첫 금메달을 조국에 바친다.” ‘코리안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의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도전은 특별하다. 한국 선수단 최연소 대표로 뽑힌 4년 전 아테네에서 대청중 3학년이던 박태환은 남자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버저가 울리기도 전에 출발대 위에서 물 속으로 빠져버렸다. 부정출발이었다. 그대로 탈락 처리돼 경기장 밖으로 나간 박태환은 탈의실에 숨어 2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린 박태환은 ‘내가 왜 그랬을까’는 반성과 함께 ‘다음번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정상을 오르겠다’는 다짐까지 했다. 수영 선수에게는 가장 큰 무대인 올림픽에서 어이없이 실패를 맞은 까까머리 소년은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국제수영연맹(FIFA) 월드컵 시리즈와 쇼트코스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메달 행진을 벌이며 한국 수영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박태환은 2007년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자유형 400m 금메달과

200m 동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 정상을 밟았다. 이어 8월에 일본 지바에서 프레올림픽 성격으로 열린 일본국제수영대회에서도 박태환은 해켓을 제치고 자유형 400m 우승을 거머쥐었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자유형 400m는 개막일 다음날인 8월 9일 저녁에 예선을, 10일 오전에 결승을 치르게 돼 있다. 한국의 첫 메달 종목은 9일 메달이 나오는 사격이 가능성이 크지만 불발될 경우 박태환이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박태환의 자유형 400m 최고 기록은 동아시아대회에서 낸 3분43초59의 아시아신기록. 올해 랭킹을 보면 해켓이 지난 3월 작성한 3분43초15가 가장 빠르고, 라스 켈스(미국)이 자국 대표선발전에서 기록한 3분43초53가 다음이다. 박태환은 올해 랭킹 3위에 머물러 있지만 태릉에서 이 종목 세계 기록(3분40초08)을 목표로 철저한 프로그램 아래 계획적인 훈련을 하고 있어 2~3초 정도 더 줄이면 우승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노민상 감독의



2008 베이징 올림픽 D-30일인 9일 오후 박태환이 태릉선수촌에서 미디어데이 공개 훈련 중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이다. 주말에도 휴식 없이 물 속에서 헤엄치는데만 열중하고 있는 박태환은 “나를 빼고 모두 라이벌이다. 죽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환은 자유형 400m 뿐만 아니라 200m와 1,500m에도 출전한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와 작년 세계대회에 이어 다시 맞붙는 자유형 200m는 10일 저녁 예선에 이어 11일 오전 준결승, 12일 오전 결승까지 3일에 걸쳐 열리는데 박태환이 펠프스의 다관왕 행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도하아시아게임 이후 자신의 기록(14분55초03)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1,500m는 15일 저녁에 예선을 하고 이틀이 지나 17일 오전에 결승을 한다. 박태환의 라이벌은 해켓과 미국 대표선발전에서 우승한 피터 밴더케이, 사브리모비츠, 프릴루코프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베이징올림픽 유망주 박태환 수영 선수 프로필. 생년월일, 체중, 신장, 출신학교, 소속 대학, 주요 성적, 합성 경력 등 상세한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엄청난 부와 인기를 동시에 거머쥔 지구촌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총출동한다. 관영 영자차 차이나데일리는 9일 테니스 최고의 스타인 로저 페더러를 비롯해 마리아 샤라포바(테니스), 리오넬 메시(축구), 야오밍(姚明·농구), 르브론 제임스(농구), 마이클 펠프스(수영) 등 세계적 슈퍼스타들이 이번 올림픽에 조국과 자신

스포츠 스타 총출동... 별들의 전쟁 관심

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출전해 기량을 한껏 뽐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가장 주목받는 스타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스위스)로 그는 5년 가까이 세계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또 여자 테니스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도 이번 올림픽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전 세계 취재진과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몸값으로 따지면 미국의 농구 드림팀을

이끌 NBA 스타들이 단연 눈에 띈다.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와 코비 브라이언트(LA 레이커스), 카멜로 앤서니(덴버), 드웨인 웨이드(마이애미) 등 미국 농구대표팀 선수들은 소속팀에서 연봉만 수백만달러를 받고 있으며 광고수입 등을 합치면 천문학적인 수입을 챙기는 스타들이다.

한국팀 최고령·최연소 이봉주-강영서 24년차

2008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1996 애틀랜타 대회 이후 4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8·삼성전자)다. 애틀랜타 대회 은메달에 이어 두 번째

올림픽 메달 획득을 노리는 이봉주는 어니스트 불록을 눈앞에 둔 1970년생이다. 최연소 선수는 여자 배영 200m에 출전하는 강영서(14)다. 정진여중 2학년에 재학 중인 강영서는 1994년생으로 이봉주와 무려 스물네 살 차이나 난다.



윤석민

“친구야 우리 4강 가야제”

‘불붙은 KIA 에이스 전쟁’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가 2005년 입단동기 윤석민·이범석의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8일 현재 38승 41패를 기록하고 있는 KIA에서 윤석민(9승)과 이범석(5승)은 팀 다승부문 1·2위를 달리며 14승을 합작했다. 두 선수의 선의의 경쟁에 마운드가 활기를 띠면서 팀 성적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4일 삼성전에서 이범석이 생애 첫 완봉승을 장식하자 윤석민은 8일 한화전 완투승으로 응수했다. 8일 윤석민은 135개의 공을 던졌다. 올 시즌 자신의 최다 투구수를 갈아 치운 윤석민은 9이닝을 4피안타(1홈런) 9탈삼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올 시즌 첫 완투승을 장식했다. 이날 윤석민은 1회 연경훈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지만 이후 홈런을 잡지 못한 피칭으로 경기를 주도했다. 4-1로 앞섰던 8회 많은 이들이 투수교체를 예

‘입단 동기’ KIA 윤석민·이범석

신바람 쾌투... 돌이서 14승 합작

최근 팀 상승세 이끈 일등공신

상했지만 윤석민은 다시 마운드에 올라 단 6개의 공으로 세 명의 타자를 요리했다. 9회에도 등장한 윤석민은 첫 타자 연경훈을 투수 앞 땅볼로 잡아낸 뒤 클락과 김태균에 연속 안타를 맞았다. 잠잠하던 불펜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간베 투수 코치가 마운드에 올라갔지만 윤석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윤석민은 김태완과 신경현을 삼진으로 잡아내고 결국 팀 5연승을 확정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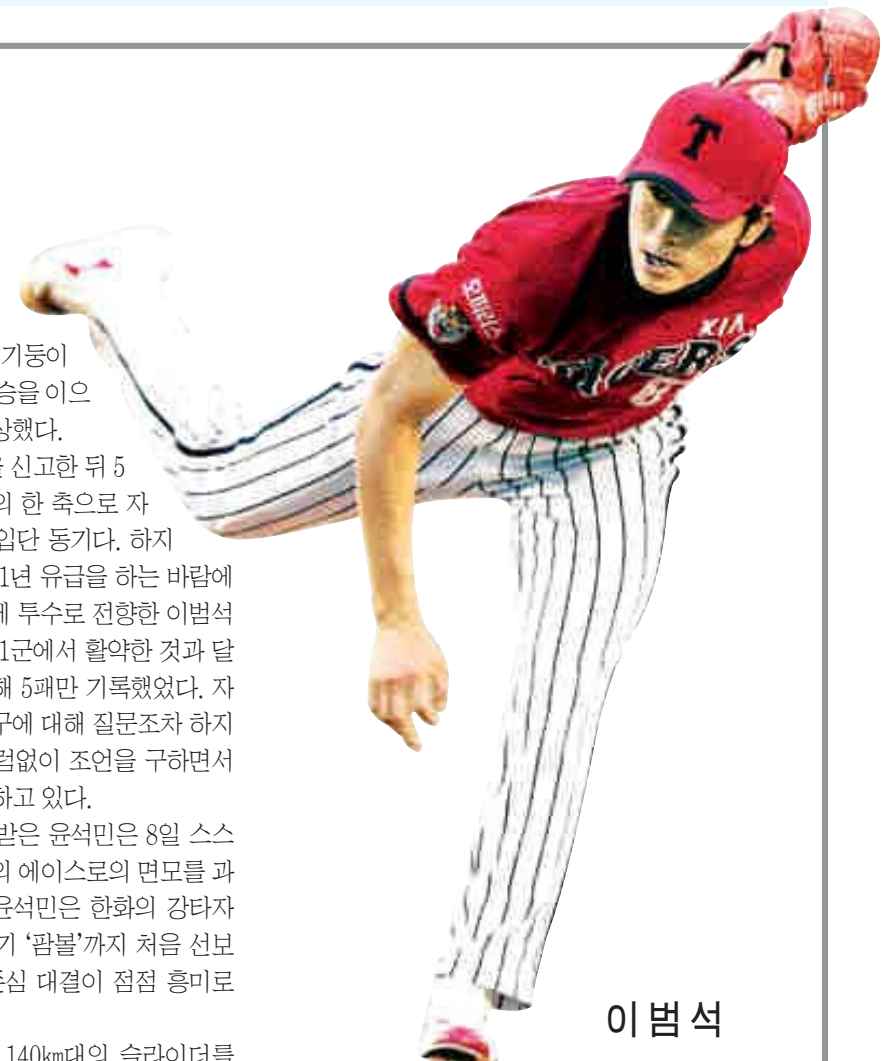
지난달 15일 어깨 근육이 뭉쳐 2군으로 내려갔던 윤석민은 2일 우리경기에서 6이닝동안 8피안타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되면서 아쉬운 복귀전을 치렀다. 반면 입단동기 윤석민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범석은 4일 삼성전 선발로 나와 9회 2사까지 노히트 노런의 역투를 선보이며 생애 첫 완봉승을 기록했다. 윤

석민과 서재용, 마운드의 두 기둥이 주축한 사이 이범석은 팀 연승을 이으면서 새로운 에이스로 급부상했다.

올 시즌 프로 데뷔 첫 승을 신고한 뒤 5승을 거머쥐며 KIA 마운드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이범석은 윤석민과 입단 동기다. 하지만 외야수 출신의 이범석은 1년 유급을 하는 바람에 나이가 한 살 더 많다. 뒤늦게 투수로 전향한 이범석은 윤석민이 입단과 동시에 1군에서 활약한 것과 달리 3년 동안 41경기에 등판해 5패만 기록했다. 자존심 때문에 윤석민에게 야구에 대해 질문조차 하지 못했던 이범석은 이제 스스럼없이 조언을 구하면서 경쟁자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범석의 맹활약에 자극 받은 윤석민은 8일 스스로 완투를 선택하면서 부동의 에이스로의 면모를 과시했다. 승리를 위해 이날 윤석민은 한화의 강타자 이범호를 상대로 비장의 무기 ‘팜볼’까지 처음 선보이기도 하는 등 마운드 자존심 대결이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다.

150km가 넘는 ‘총알투’와 140km대의 슬라이더를 장착한 두 신에 선수의 에이스 경쟁으로 KIA 4강길에 가속도가 붙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범석